



대안가정

통권32호 (계간) <http://www.daeanhome.org>

- 2. 총회 및 대안가정 가족의 밤
- 4. '해맑은아이들의집' 이야기
- 6. '해맑은아이들과 함께하는 Sound of Music'
- 8. 해맑은아이들의집, 해맑은친구들의집 소개
- 10. 대안가정 자조모임/ 정기이사회
- 11. 인사/ 정민경, 고빛나
- 12. 상담현황 및 소식
- 14. 회비(후원) 내역 및 재정보고
- 16. 음악회 공지, 후원안내



한/가/정/에/서/한/아/이/를/보/살/핀/다/면...

발행인 이수형 / 발행처 (사)대안가정운동본부 / 발행일 2011. 2. 10
705-822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3동 2296-20번지(2층) / 전화 (053)628-2592 / 전송 (053)628-2595



2011 정기총회 및 대안가정 가족의 밤

2011년 2월 22일, 진석타워웨딩홀에서 2010 정기총회 및 대안가정 가족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2010년 사업 및 결산보고와 2011년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이 있었고, 신입이사 두분의 소개가 있었습니다. 회원 및 대안가정 가족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며 자유롭게 교재를 나누는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4월에 개최될 '해맑은아이들과 함께하는 사운드 오브 뮤직' 무대에 설 우리 아이들의 공연도 있었습니다.



▲ 행사 전 즐거운 식사부터~

(사) 대안가정 운동본부



▲ 이수형 이사장님의 개회 인사



▲ 김명희 사무국장의 사업 및 재정보고



▲ 진지한 총회 분위기



▲ 김사열 신입이사님



▲ 박한배 신입이사님



▲ 큰엄마와 해맑은아이들의 '도레미송'



▲ '안녕! 여러분'



▲ 이사님들의 '에델바이스' 합창



▲ 노래지도도를 해주신 구교청, 김혜진 선생님



▲ 6년간 다혜를 보살펴 온 대안가정



▲ 혜원이와 대안가정 엄마



▲ 다함께 '도레미송' 합창



▲ 윤숙이모와 복지연합 오유미 활동가

알콩달콩 「해맑은 아이들의 집」 이야기

▶ 우리우리 설날은 ~ 오늘이래요 ♪

봄기운이 만연한 지금 늦었지만 해맑은아이들의집 새해맞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해맑은아이들의집서는 아이들과 설을 보내기 위해 이수형 이사장님, 박한배 이사님, 이병희 이사님께서 키다리아저씨로 출동해주셨습니다. 키다리아저씨들께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받은 아이들은 입이 귀에 걸렸답니다. 남자팀, 여자팀으로 편을 나눠 윷놀이도 하며 명절 분위기를 맘껏 내 보았어요. 아이들이 윷놀이에 얼마나 열을 내는지 요근래 보기 드문 모습이었습니다. 키다리아저씨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동화책에 흠뻑 빠졌어요.

JP. 모건기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그룹홈 책보내기, 꿈배달사업'을 그룹홈협의회를 통해 신청하여 선정이 되었습니다. 책꽂이 2조와 도서 100권을 지원 받았네요. 사전에 설문지를 통해 아이들의 흥미와 수준에 맞는 책들이 배달되어왔습니다. 책 읽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매일 아침 등교하기 전 꼭 책을 1권씩 읽고 학교에 가는 우리 아이들! 너무 예쁘지요? ^^ 도운이는 아직 글씨를 잘 모르지만, 누나들이 읽어준 「로라의 별님」이란 동화책은 다 외워서 읽고 있습니다. 책을 서로에게 읽어주는가 하면, 이모들에게도 읽어주기도 합니다. 책을 통해서 아이들의 지식과 성품이 더 풍성해지기를 기대합니다.



▶ 아름이 재롱발표회, 졸업여행, 입학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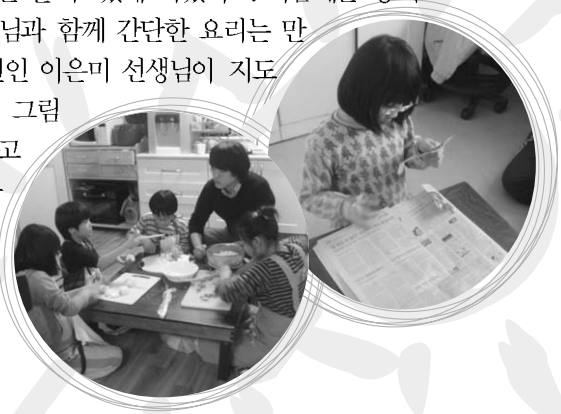
졸업을 앞두고 아름이 어린이집 재롱발표회가 있었습니다. 3년 마다 1번씩 하는 특별한 재롱발표회라 어린이집이 아닌 다른 공연장을 빌려서 선보이는지라 준비기간이 제법 되었습니다. 연습하고 있는 노래를 흥얼거리는 아름이에게 연습하고 있는 공연을 미리 보여달라고 부탁하면 부끄러워하며 방으로 뛰어 들어가곤 해서 과연 아름이가 잘 할 수 있을까 염려했는데 아주 예쁘게 잘했습니다. 재롱발표회를 마치고 어린이집에서 마지막 추억만들기로 경주 졸업여행이 있었습니다. 불국사, 첨성대 등을 둘러보며 하루 온종일 그동안 정들었던 어린이집 친구들과, 선생님님과 즐겁게 놀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름이! 혹시라도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할까 봐 걱정했는데 새친구도 많이 사귀고 학교생활에도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 안심입니다. 요즘엔 좋아하는 남자 친구가 생겼다고 남자친구 이야기를 종종 하기도 한답니다. "아름아! 아무나 데리고 와서 남자친구라고 하면 이모가 화낼까야. 고르고 또 골라야 한다. 아름이~ 파이팅!"





▶ 요리수업과 NIE수업

올 해는 우리 아이들이 자원봉사 선생님들과 많은 체험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중식 요리사인 선생님이 만든 요리를 먹기만 하다가, 이제는 선생님과 함께 간단한 요리는 만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NIE수업은 박한배 이사님의 부인인 이은미 선생님이 지도해 주세요. NIE는 신문을 활용하여 주제를 정한 뒤, 신문의 그림이나 글자를 가지고 오려 붙이며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해 생각을 잘 정리하지 못하는 아이에게 도움이 된답니다.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는 선생님 덕분에 단비와 혜운이가 더 신나서 수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두 분 선생님! 감사합니다!



▶ 교통안전교육

지난 2월 그룹홈협의회 대구·경북지부 연합으로 아이들과 함께 달성군에 위치한 [대경어린이교통안전교육원]에서 교통안전교육을 받았습니다. 추운 날씨에 교육장소가 멀어 아이들이 힘들어 할까봐 걱정했지만 우리 아이들은 간단한 외출에 신이 났더군요. 아이들의 신난 모습을 보니 이모들도 기분이 좋았답니다. 아이들은 교육원 원장님의 이론 교육 후 직접 카트를 운전할 수 있는 체험을 통해 직접 운전자가 되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영찬, 혜운이 생일 파티!

우리 아이들의 생일 파티가 있었습니다. 3월에 태어난 영찬이를 시작으로 4월에 태어난 혜운이가 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영찬이는 생일을 맞아 아빠를 만나고 돌아왔네요. 아빠가 사주신 케이크로 생일파티를 했습니다. 늘 생일 때면 특별한 사건(?)이 없어서 섭섭해 했던 혜운이는 피자헛에서 가족들의 뜨거운 축하를 받으며 생일파티를 했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나는 아이들이 고맙고 지금처럼 계속 예쁘게 자라길 바랍니다. 영찬아! 혜운아! 생일 축하한다^^



▶ 대구·경북지부 그룹홈 이모들의 책 나눔

4월부터 그룹홈의 이모들이 책 나눔을 합니다. 큰엄마의 제안으로 다른 그룹홈 이모들과 「내 아이와의 두 번째 만남」이란 책을 읽고 나눔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책은 사춘기 아이와 부모를 다룬 책으로 아직 우리집에는 질풍노도의 사춘기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그룹홈 이모들과 이야기를 하며 남파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때론 여성으로서 이해하지 못하던 미묘한 부분들에 대한 조언도 얻고, 같이 고민하며 아이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한결 달라졌습니다. 앞으로도 책 나눔 모임이 우리 아이들과 생활하는 데 있어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겠죠? 이모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



해맑은아이들과 함께 하는 Sound of Music

후원음악회 해맑은아이들과 함께 하는 'Sound of Music' 연습 장면을 미리 공개합니다!
장장 1년 동안 준비한 공연 연습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자주 틀리는 음정을 다시 잡고 울동을 손보아 가며 이제 무대에 오를 일만 남았습니다. '도레미도 구별하지 못했던 아이들이 제법 어울리는 화음을 만들어내고, 뻗뻗했던 몸들이 조금씩 유연해지더니 리듬을 타고 즐겁게 울동을 하네요. 노래를 부르는 일이 익숙하지 않은 일이라 힘들어 하던 아이들이 어느새 부르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 큰 변화가 아닐까요? ^^







아동그룹홈 해맑은아이들의집, 해맑은친구들의집 식구들을 소개합니다^^

해맑은친구들의집을 시작하려 합니다.

지금 해맑은아이들의집은 정원 7명에 현원 7명, 게다가 입소대기 중인 아이까지!

해맑은아이들의집은 남자집으로, 해맑은친구들의집은 여자집으로 꾸려나갈 예정입니다.

성별에 따라 다른 생활습관과 양육방침의 차이에 따라 남자집과 여자집으로 나누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였습니다.

새롭게 꾸며질 해맑은집 식구들을 소개합니다!



가장 큰 누나 강혜윤(13세)입니다. 든든한 맏이답게 이모들도 잘 돕고 동생들도 잘 챙깁니다. 6학년인 혜윤이는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어 당장 전학을 하지 않고, 초등학교 졸업 후에 친구들의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늘 주인공이 되고 싶은 신영찬(9세)입니다. 우리 영찬이는 가족의 중심에서 늘 주인공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나봐요. 그래서 관심을 끌 수 있는 방법이면 가끔은 장난스러운 거짓말도 불사합니다. 영찬이의 마음이 환히 보이기에 일부러 속아주기도 한다는 것을 영찬이는 알까요?



최고의 개구쟁이 한동협(9세)입니다. 장난을 너무 좋아하기에 타박도 많이 듣지만 뒤돌아서면 쿨하게 잊어버리고 방긋 웃어주는 동협이입니다. 지금까지는 동생인 이름이와 함께 살며 매일 싸웠는데 이름이가 친구들의집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알면 서운해 할 것 같아요.



순둥이 김준희(9세)입니다. 정말 순한 우리 준희는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가도 싸울 것 같으면 혼자 책을 보거나 자리를 피하는 박애주의 자랍니다.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부엉이처럼 큰 눈을 껌뻍 껌뻍 거리며 이모~ 이거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면 그 표정이 얼마나 진지하고 예쁜지 모른답니다.



막내 김도윤(6세)입니다. 지칠줄 모르는 에너지로 집안 곳곳을 중형 무진 달리는 도윤이는 우리집의 귀염둥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좋아해서 이모를 앉혀두고 동화책에 그림을 보며 도윤이판 이야기를 해준답니다. 입에 힘을 주어 오물조물 움직이는 것을 보면 깨물어주고 싶을 정도랍니다.



빛나 이모입니다. 아킴마가 되어 돌아온 빛나 이모는 특유의 통찰력으로 아이들이 이모에게 미처 말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알아채 아 이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미란이모입니다. 꼼꼼하고 다정한 미란 이모는 한 아이, 한 아이 세심하게 살피고 배려해 주세요. 간혹 아이들이 잔피를 부려도 금새 들 통이 나버립니다.

해맑은친구들의집 소개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정단비(11세)입니다. 혜운언니와 함께 지내 던 단비가 해맑은친구들의집에서 첫째가 되어 동생들을 얼마나 잘 이 끌지 기대가 됩니다. 언니가 되면 책임감도 강해지고, 동생들에게 부끄럼지 않기 위해 공부도 열심히 하겠죠?



명랑소녀 변다혜(9세)입니다. 가녀린 체구에 작은 목소리로 바람 불면 스러질 것 같은 외모와는 달리 아무지게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줄 알고, 활발하게 뛰어노는 것을 좋아하는 하이소프라노 다혜는 해맑은 친구들의집이 만들어지면 가정위탁을 종료하고 새로 만들어질 그룹 홈에 입소할 예정입니다.

럭비공 같은 아이 한아름(8세)입니다. 하고 싶은 것이 일이 있으면 망설임 없이 행동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끝까지 이야기하는 아 름이는 애교쟁이입니다. 집 문을 열고 들어오면 가장 먼저 현관으로 뛰어나와 가족들을 맞이해주는 아름이는 정이 많은 아이입니다.



윤숙 이모입니다. '정정당당!' 을 외치며 아이들과 허물없이 비밀 얘 기도 나누고, 놀 것들을 찾아 나서는 소탈함(?)을 자랑합니다. 제 입으 로 말하긴 쑥스럽지만, 이는 것도 모르는 것도 열심히 배워서 열심히 퍼주고 있습니다.

해맑은친구들의집 주말을 책임질 큰엄마입니다. 고운목소리로 아이 들과 노래하는 큰엄마는 음악회를 준비하며 기타와 피아노반주 실력 이 느셨답니다. 아마 주말은 집에서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을 듯 합니다.





대안가정 자조모임

1월 28일, 3월 18일 대안가정 자조모임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자주 모임을 가질려고 합니다. 맛있는 식사도 하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것이 대안가정 엄마들에게 기분전환도 되고 좋겠지요. 중학생이 된 동진이네, 여전히 바쁘신 가을이 고모님, 혜원이에 대한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셨다는 혜원이네가 모였습니다. 몸도 편찮으시고 일정이 맞지 않아서 함께 하지 못한 태호 고모님! 손자를 돌보느라 바쁘신 진이네 어머니! 뵙지 못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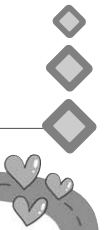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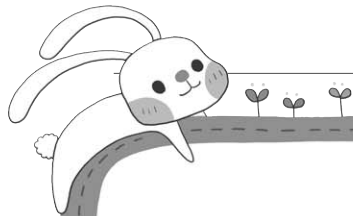
위탁기간이 길어지면서 힘들고 지칠 때도 있고, 내가 양육하고 있는 방법이 맞는 것인지 불안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성장할수록 교육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부담도 많아집니다. 자조모임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이사회

3월 25일, 영남별장에서 정기이사회가 있었습니다. 4월에 예정된 음악회 준비와 5월중에 설립될 제2 그룹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많은 임원진들이 함께 해주셔서 음악회를 잘 치러낼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이사님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에텔바이스'를 들려주실 예정으로 의상도 준비하시고, 연습도 하실 계획입니다. 멋진 공연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정민경

2004년 2월, 대안가정운동본부와 우연히 인연을 맺게 되어 어느덧 회수로 8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음을 새삼 느끼며, 이제 이곳을 떠나게 되어 인사를 드립니다.

일을 시작하고 처음 위탁연결을 하게 됐던 아이가 다혜였는데 벌써 3학년이 됐습니다. 그 동안 많은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만났고, 때론 안타까움에 속상하기도 했고, 친가정으로 돌아가는 아이를 보며 기쁘기도 했었습니다. 음악회, 행복나눔, 대안가정 나들이, 아동캠프 등 함께 했던 추억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 경주로 가족나들이를 갔을 때, '무엇인가 프로그램을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했었는데 너무나 가족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잘 놀고 왔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아이들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많은 배움을 주셨던 대안가정 가족들, 항상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고 반겨주셨던 이사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이 많이 들어서인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앞으로 대안가정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해나갈지 그 모습이 벌써 궁금해집니다.

멀리서나마 지켜보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



돌아왔습니다.

고빛나

모두들 감사합니다. 출산휴가를 떠나면서 많은 걱정을 했는데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순산하고, 에너지 충전해서 돌아왔습니다. 전화로 축하를 전해주시신 마음 따뜻한 이사장님, 기도해주신다며 힘내라고 응원해주신 왕복시님, 출산을 하러 갈 때에도 친정엄마처럼 걱정스런 눈빛으로 다독여주시더니 전화통화를 하면서 "눈물 날 것 같다."는 말로 모든 애정을 표현해주신 국장님, 모든 기간에 함께하며 누구보다 가장 많이 도와준 마음의 빛이 가득한 윤숙이모(꼭 갖고야 말테야), 만나자마자 헤어져서 아쉬웠지만 선천적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진 믿음직스러운 미란이모, 그 외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출산이라는 경험은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이정도면 최선일 거야. 이정도면 사랑해 주는 거지.'라고 생각했던 오만함에 종지부를 찍어줬습니다. 뭐라 말로 표현은 안 되지만 아이들 한명 한명이 정말 귀하다는 것을 얼마나 크게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룹홈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선택하였기에 아이는 친정에 맡겨두기로 했습니다. 내 아이와 바쁜 시간들이나만큼 헛되지 않게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난 왜 엄마랑 떨어져 살았어?'라고 물어보는 아이에게 '엄마는 내가 감수해준 시간들로 누구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어. 고마워!'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 상담현황

♣ 대안가정운동본부 현황

상담 내용 월	아동위탁상담		대안가정상담		지원상담			기타	계	아동- 친부모 만남	신규 신청 가정	신규 의뢰 아동
	아동위탁 의뢰상담	친부모 상담	대안가정 신청상담	양육 상담	행정	주치의	타기관 연계					
1월	1	14	2	5	-	-	-	-	22	2	1	1
2월	-	-	-	-	-	-	-	-	-	6	-	-
3월	1	13	1	6	-	-	-	3	24	3	-	-
계	2	27	3	11	-	-	-	3	46	11	-	-

♣ 해맑은아이들의집 현황

상담 내용 월	상담 내용	입소의뢰 상담	연고자 상담	아동 상담	행정지원 상담	주치의 관련상담	타기관 연계상담	학교 상담	기타 상담	계
1월	-	6	20	-	6	-	2	1	35	
2월	13	20	22	6	3	-	-	1	65	
3월	-	15	21	-	6	-	18	-	60	
계	13	164	251	8	42	1	73	3	555	

■ 본부소식

· 2011 정기총회 및 대안가정 가족의 밤 (2011. 2.22)

진석타워웨딩뷔페에서 정기총회 및 대안가정 가족의 밤이 개최되었습니다. 임원진들, 회원들, 대안가정 가족들 모두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회의를 간단히 진행하고, 신입이사 소개가 있었습니다. 특히 해맑은아이들의집 가족들이 그동안 열심히 연습해 온 '사운드 오브 뮤직' 공연이 감동적이었습니다.

· 대안가정 자조모임 (2011. 1.28/3.18)

올해는 대안가정 자조모임을 자주 가질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만나서 얼굴도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엄마들에게 환기도 되고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정기이사회 (2011. 3.25)

영남별장에서 정기이사회가 있었습니다. 4월 26일, 봉산문화회관에서 개최될 '해맑은아이들과 함께하는 사운드 오브 뮤직' 음악회에 대한 논의와 5월 중에 마련될 제2그룹홈 진행상황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 해맑은아이들의집 소식

· 그룹홈협의회 대구·경북지부 총회 (2011.2.8)

그룹홈협의회 대구·경북지부에서 총회가 열렸습니다. 지난해의 사업을 돌아보고 2011년의 사업계획을 논의, 승인하는 시간으로 저희 집에서는 김명희 시설장, 설윤숙, 윤미란 보육사가 참석하였습니다.

· 아동실종유괴 종사자 교육 참석(2011.2.24)

아동실종유괴 종사자 교육을 설윤숙, 윤미란 보육사가 다녀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하고 실종아동전문기관을 통하여 아동실종유괴에 대한 기본 지식과 종사자의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을 받아 아이들에게 자체적으로 교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그룹홈협의회 대구경북지부 시설장모임 (2011. 3.4/4.8)

그룹홈협의회 대구·경북지부에서 시설장 모임이 있었습니다. 3월에는 소망의친구들에서, 4월에는 우리들세상남학생그룹홈에서 열렸습니다. 김명희 시설장과 고빛나 팀장이 참석하여 고빛나 팀장이 해맑은아이들의집의 시설장으로 승격됨을 알리고 출산휴가 후 복귀인사를 하였습니다.

· 그룹홈협의회 대구경북지부 실무자모임

(2010. 3.10/4.15)

그룹홈협의회 대구·경북지부에서 실무자 모임이 해맑은아이들의집에서 있었습니다. 3월 실무자 모임에서는 김명희 시설장이 참석하여 실무자 선생님들의 실질적인 고충점을 들어주시고 위로하며 해결 방안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총회 및 이사회 참석

(2011. 2.17/3.17)

대전 KTX역 회의실에서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정기총회 및 이사회에 김명희 시설장이 다녀왔습니다. 전국의 그룹홈들과 교류하며 그룹홈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의 정책과 행정에 관하여 의견을 모으고 현재 시행사업의 보고 및 공지, 사업 진행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 자립지원교육 (2011. 3.22)

아이들의 자립이 점점 더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만 15세부터 자립계획을 세우는 것이 법적으로 명시될 예정이라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하고 중앙아동자립센터에서 주관하는 '레디? 액션! 자립 지원표준화프로그램 설명회'에 김명희 시설장이 다녀왔습니다.

· 사회복지정보시스템 활용 보수교육(2011.3.24)

사회복지정보시스템 활용 보수교육에 윤미란 보육사가 참석하였습니다. 이 교육은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의 활용 능력

을 높이며 원활한 사용을 위한 교육으로 시군구 제출용 공문 작성법과 경리 업무의 기본적인 사항들의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 그룹홈협의회 매뉴얼회의 (2011.4.7)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매뉴얼 개발을 위한 모임에 김명희 시설장이 참석했습니다. 각 그룹홈에서 실제 이루어지는 업무를 간추려 행정절차, 프로그램운영 등 실질적으로 활용될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아이들 소식

· 도윤이가 엄마를 만났습니다 (2011. 2.1~4)

도윤이가 엄마와 명절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키즈랜드며 아웃백이며 엄마와 이곳저곳을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 준희가 아빠를 만났습니다 (2011. 2.1~5/3.26~27)

준희가 아빠와 명절도 보내고, 신학기 준비도 함께 했습니다. 아빠를 만나 옷도 사고 영화도 봤다고 합니다. 아빠집이 멀어 다녀오기에 시간이 꽤 걸리지만 준희에게는 더 없이 즐거운 시간입니다.

· 동협이와 이름이가 아빠를 만났습니다

(2011. 2.1~5/3.26~27)

동협이와 이름이는 아빠와 큰집 식구들이랑 부산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동협이는 배 멀미로 고생했지만 금방 괜찮아졌네요. 그런데 이녀석, 반장이 되었다고 엉뚱한 거짓말을 했다고 하네요. 동협아 다음엔 꼭 반장 하자^^

· 다혜가 엄마를 만났습니다 (2011. 2.1~5/3.26~27)

다혜가 설연휴를 외삼촌댁에서 엄마와 보내고 왔습니다. 명절에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엄마가 건강해져서 다혜를 더 자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 혜윤이가 아빠를 만났습니다 (2011. 2.2~4)

설 명절을 맞아 혜윤이가 아빠를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쭉쭉 자란 혜윤이 키가 아빠 키보다 더 커 보여 이모도 아빠도 깜짝 놀랐습니다.

· 단비가 친척을 만났습니다 (2011. 1.29~2.5)

단비가 명절을 앞두고 8박 9일이나 길게 작은아빠집에 다녀왔습니다. 작은아빠는 단비와 같이 살고 싶어 하셨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단비는 섭섭한 마음을 금세 잡고 다음 만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영찬이가 아빠를 만났습니다 (2011. 3.19~20)

후원안내

꼭 대안가정이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뜻은 공감하되 당장 실천할 수 없는 분들은 대안가정이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예금주 (사)대안가정운동본부

- 대구은행 : 068-05-005600-9
- 농협 : 718-01-176941
- 국민은행 : 602-01-0688-119
- 신한은행 : 100-018-271549

아동그룹홈 '해맑은아이들의집'은 7명의 아동과 2명의 선생님이 가족공동체가 되어 함께 생활하는 또 하나의 대안가정입니다.

예금주 「해맑은아이들의집」

- 대구은행 : 140-12-001469



■ 2011년 회비 및 후원 내역

(2011년 1월~3월)

이사회비	
김규원	90,000
배성우	90,000
배순균	90,000
송광익	240,000
우병걸	150,000
이병희	150,000
이수형	600,000
이왕욱	100,000
이태원	150,000
정영숙	150,000
차탁대	150,000

정회원 회비	
권일섭	30,000
김명희	60,000
김봉섭	30,000
이국진	30,000
이재웅	40,000
이춘희	90,000
정종호	60,000

후원회원 회비	
(주)대원 포장기계	120,000
(주)신화금기	60,000
(주)월성	60,000
(주)효선 건설	60,000
(주)TCN 대구방송	150,000
(주)TCN 대구케이블방송	150,000
도교건축사무소	120,000
동우회회원	90,000
동진산업	60,000
메리츠화재	
대구보상서비스센터	167,000
신우유통(다사)	30,000
강경희	30,000
강한우	60,000
고 석	30,000
곽운섭	10,000
권영학	30,000
권영환	15,000
권용한	15,000
권준숙	30,000
권정애	30,000
권재혁	40,000
금자경	60,000
김 구	30,000

김경현	30,000
김관우	30,000
김광미	30,000
김광연	30,000
김낙원	30,000
김덕겸	30,000
김명희	30,000
김미자	30,000
김봉구	30,000
김상기	15,000
김수득	30,000
김순자	30,000
김쌍호	150,000
김영남	15,000
김영범	30,000
김영태	30,000
김영학	90,000
김원희	30,000
김은정	15,000
김은형	20,000
김응숙	20,000
김의룡	30,000
김이숙	90,000
김재수	30,000
김종한	30,000
김중열	15,000
김진석	30,000
김진수	30,000
김찬규	30,000
김현애	15,000
김현익	30,000
김호근	15,000
김환준	30,000
나일웅	30,000
나정호	10,000
류보현	5,000
류정열	60,000
류지창	10,000
문옥희	30,000
문우경	30,000
박나연	30,000
박광립	60,000
박광수	30,000
박기호	60,000
박동영	30,000
박동준	30,000
박만근	30,000
박문옥	20,000
박미경	30,000
박미영	30,000
박병수	30,000
박성실	30,000
박순우	90,000
박신연	30,000
박연희	60,000
박옥란	30,000
박은진	30,000
박임순	30,000
박진구	90,000
박창현	90,000

박천훈	30,000
박혜숙	90,000
배명섭	30,000
배성훈	60,000
배총렬	30,000
배태순	60,000
백기웅	30,000
백석환	30,000
삼성목, 금형산	20,000
서경희	60,000
서진천	150,000
손병택	15,000
송계무	40,000
송창섭	30,000
심금석	60,000
심훈순	15,000
안병근	10,000
안상준	30,000
안지수	30,000
양재원	30,000
오세창	60,000
오찬현	15,000
오현주	30,000
우언주	30,000
위희탁	30,000
유은주	30,000
유정욱	30,000
윤순영	30,000
윤영철	30,000
윤정은	10,000
윤정희	30,000
은완수	30,000
이 담	150,000
이 창	60,000
이내호	150,000
이동욱	50,000
이동진	60,000
이미선	30,000
이미숙	30,000
이병호	15,000
이보경	30,000
이성희	30,000
이순임	30,000
이승미	30,000
이연생	60,000
이영찬	15,000
이영희	30,000
이옥화	30,000
이유미	15,000
이은영	10,000
이일영	30,000
이재수	30,000
이재웅	20,000
이정현	15,000
이주웅	30,000
이지연	50,000
이진욱	60,000
이철훈	30,000
이혜영	30,000

이혜진	15,000
이호웅	60,000
임영진	30,000
임익성	15,000
임진규	5,000
장경은	30,000
장경철	30,000
장삼철	90,000
장윤미	30,000
장종호	30,000
장호덕	30,000
전영평	30,000
전재현	60,000
전재혁	80,000
전준환	30,000
경경란	60,000
정미옥	120,000
정연기	600,000
정재국	30,000
정재석	10,000
정한교	30,000
정혜경	30,000
정희우	5,000
조영교	30,000
조재학	90,000
조정자	30,000
주은비	30,000
채승욱	30,000
채종해	30,000
최경호	20,000
최봉진	10,000
최원창	90,000
최정숙	20,000
허다영	60,000
허정욱	60,000
허현열	40,000
한미숙	60,000
한은희	30,000
허만우	300,000
허유희	30,000
허해정	30,000
홍경자	30,000
홍동표	20,000

그룹후원	
강안숙	15,000
강은향	10,000
구교청	60,000
김근량	10,000
김영범	30,000
나현진	20,000
남부경찰서	100,000
대백선교문화재단	450,000
류지창	20,000
배현석	30,000
서대현	60,000
이미경	30,000
이승희	15,000
이운영	10,000
장영선	15,000
정용태	150,000
정재석	20,000
추윤해	50,000
허영은	60,000
황윤선	30,000

특별후원	
이수형	374,190

물품후원	
구교청	빵, 치킨
김효정	골1상자
이대준	피자, 치킨,
김치냉장고, 세탁기, 옷장	
이마트아동내의9세트,	
몽셀 8상자	
이수형	사과즙 골1상자
이은미	떡2통
이왕욱	자장면

일반후원	
신한아름인포인트	160,512
이마트단체지원	35,511
해피빈후원금	24,000
대구 지방번호사회	2,500,000
금성유치원	100,000

■ 사무국 재정보고

(2011년 1월~3월)

세입			세출		
관항	목	결산액	관항	목	결산액
회비		11,373,190	사무비		11,567,610
회비		11,373,190	인건비		8,921,810
	이사회비	1,915,000	급여		7,168,000
	정회원회비	340,000	상여금		767,000
	후원회원회비	8,664,000	퇴직적립금		134,000
	특별회비	454,190	사회보험료		852,810
후원금		6,225,023	업무추진비		526,000
후원금		6,225,023	기관운영비		100,000
	일반후원금	2,820,023	직책보조비		50,000
	그룹홈후원금	755,000	회의비		376,000
	음악회	2,650,000	운영비		2,119,800
잡수입		605,997	여비		178,000
잡수입		605,997	수용비		864,530
	예금이자	275,997	공공요금		248,720
	기타잡수입	330,000	제세공과금		600,000
			차량비		81,000
			잡비		147,500
			사업비		4,859,970
			일반사업비		4,859,970
			대안가정지원		1,035,420
			출판홍보사업		654,090
			후원사업		1,053,210
			총회및가족의밤		2,117,250
총계		18,204,210	총계		16,427,580
전년도 이월금		2,968,296	잔액		4,744,926
합계		21,172,506	합계		21,172,506

■ 해맑은아이들의집 재정보고

(2011년 1월~3월)

세입			세출		
관항	목	결산액	관항	목	결산액
후원금		661,100	사무비		10,115,395
후원금		661,100	인건비		8,663,465
	지정후원금	296,100	급여		7,237,000
	비지정후원금	365,000	상여금		630,000
보조금		17,036,710	사회보험료		796,465
보조금		17,036,710	업무추진비		15,000
	인건비	9,258,750	직책보조비		15,000
	시설운영비	690,000	운영비		1,436,930
	생계비	7,087,960	여비		223,100
잡수입		244	수용비		468,440
잡수입		244	공공요금		479,650
	예금이자	244	제세공과금		193,740
			차량비		72,000
			사업비		7,411,500
			운영비		4,449,690
			생계비		1,774,300
			수용기관경비		468,490
			피복비		579,340
			특별급식비		537,960
			의료비		26,100
			연료비		1,063,500
			교육비		1,079,830
			학용품비		221,060
			도서구입비		124,180
			급식비		42,690
			학습지원비		427,800
			수학여행비		8,000
			이미용비		39,000
			기타교육비		217,100
			사업비		1,881,980
			경제교육		340,000
			위생및안전지도		77,300
			가족여행및나들이		1,152,390
			가족친화		232,290
			자립지원		80,000
			보조금반환		8,695
			보조금반환		8,695
			보조금반환		8,695
총계		86,484,472	총계		17,535,390
전년도 이월금		2,543,488	잔액		2,616,617
합계		89,027,960	합계		20,152,007



회비 및 후원 관련 안내

- 대안가정운동본부에 후원하시는 분들은 연말정산 시 소득 공제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지로로 회비 및 후원금을 납부하시는 경우, 금융결제원에 입금된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실제 입금하신 날짜와 차이가 있습니다. (약 5일 소요)
- 회비 및 후원금은 가능한 자동이체로 납부하시면 좋습니다. (인터넷 뱅킹 또는 지점방문)

